

내 금융정보,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볼 수 있을까?



김준래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50대 자영업자인 최 모씨는 요즘 들어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은행과 증권, 그리고 카드 등 열 개가 훌쩍 넘는 금융 관련 앱이 단 3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최 씨로서는 이렇게 앱 숫자가 줄어든 것만 해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

놀라운 점은 앱의 숫자가 대폭 줄었는데도 기능은 예전과 똑같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계좌번호를 연동시켜 편리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거나 대출금 상환 일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예전 앱에서 볼 수 없었던 서비스다. 이 모두가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금융 서비스 대세로 자리 잡은 오픈뱅킹

오픈뱅킹이 개시 9개월 만에 금융 서비스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0%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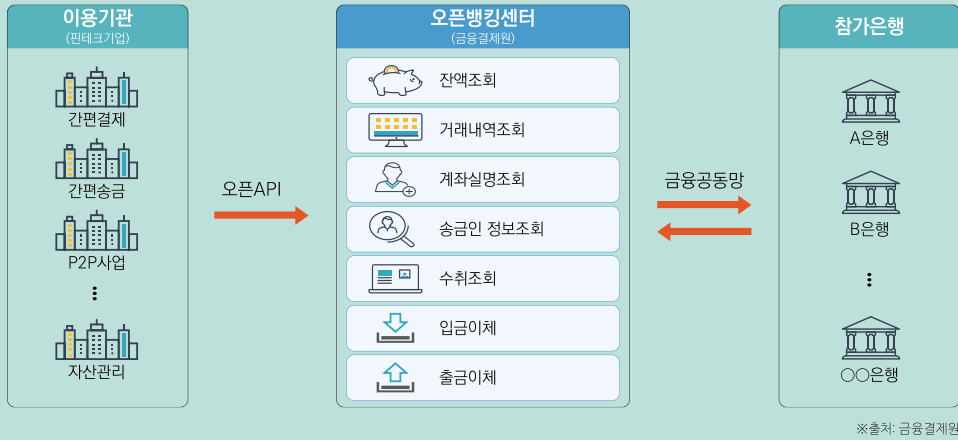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이다. 금융 결제망을 표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타행 계좌와 연동한 이체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업체의 고객들은 선불 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오픈뱅킹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1.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무료 송금 수수료와 계좌 통합 조회 등에 만족감을 보였다.

앱 하나로 오픈뱅킹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표준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한지 9개월 만에 이처럼 금융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로 상이했던 은행 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표준화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표



※출처: 금융결제원

[그림 1] 오픈뱅킹 시스템의 개요 및 절차

준과 API 표준, 그리고 보안 표준 등이 꼽힌다.

데이터 표준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Mydata)’를 들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기업이나 기관에 저장된 정보 중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 보험처럼 개인이 거래하는 자산 관리 항목 관련 정보를 특정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에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여 신용 관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분야는 가명 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명 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준화시켰다. 1따라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통신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은 물론, 세금 납부 내역 등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와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표준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생태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I는 데이

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과 그 규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체계로 이루어진 은행 간 시스템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방법과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한 표준 API로는 6개의 서비스 API와 신용등급 인증·관리 API가 꼽힌다. 6개의 서비스 API에는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 API △계좌실명조회 API △송금인 정보조회 API △수취조회 API △신용등급 조회 API 등이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여 은행에 제공하는 API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은행권 외에도 증권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API 운영을 위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표준 대상인 보안은 데이터와 AP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시작 전만 하더라도 고객정보는 방화벽 내에서 보호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에 상호 협력할 부분이 많으므로 훨씬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보안점검을 통과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에 한하여 보안 지원 예산을 통한 보안 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TTA